

지역 미술가들 “위기가 기회다”

최근 경기 침체와 미술품 양도세 과세 방적으로 미술계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작가들이 국내외 아트페어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미술시장 불황이 계속되면서 작업실에서 작품 창작만 하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작가가 스스로 자신을 알리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것이다. 아트페어는 해외 갤러리 관계자들과 미술 애호가들이 작품을 구입하는 미술시장으로 작가들에게는 작품도 팔고 해외 미술계에 눈도장까지 찍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기 때문이다.

또 다음달 22~24일 일본에서 열리는 ‘도쿄 컨템퍼러리 아트페어 2008’에도 유수종, 이이남, 최재영, 고근호, 주대희, 박형규씨가 참가한다. 특히 이씨는 내년 1월20~16월20일까지 4개월 동안 미국 예일대학교 미술관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아 전시를 갖는다. 이씨는 예일대학교의 초청으로 내년 2월17일에는 ‘뉴미디어아트와 이이남 미술의 발아’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막을 내린 ‘제8회 아트싱가포르 2008’에도 고근호, 박수만, 손봉채, 선보인다.



최근 지역작가들이 미술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외 아트페어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열렸던 제7회 한국국제아트페어 모습.

경기 침체·미술품 양도세 과세로 위축 국내외 아트페어 참여...활로 적극 모색

29일 개막하는 ‘2008 대구아트페어’(29일~11월2일)에 지역 작가 고근호, 박수만, 최재영, 박형규, 안유자, 오해경, 박태후, 주대희, 김희영씨 등이 참여한다.

대구아트페어는 국내외의 50개 화랑을 통해 3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해 2천5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올 하반기 최대의 미술 장터. 특히 올해는 국내외에서 약 200여 명의 컬렉터가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작가들은 컬렉터들의 눈을 사로잡기 위해 대부분 신작을 출품할 계획이다. 고근호씨는 해원 신윤복과 단원 김홍도의 그림 속에 컴퓨터 등 현대를 대표하는 물건을 집어넣어 색다른 모티프를 선사하는 작품을 내놓는다. 또 박수만씨는 변형된 인간의 모습을 그린 작품을, 최재영씨는 머리 큰 아이 시리즈를 각각

최재영씨 등이 참여해 세계 무대에 자신의 작품을 알렸다. 아트 싱가포르는 16개국 약 110개 아트 갤러리가 참여해 싱가포르 달러로 4천2백만 달러 어치의 작품을 선보인 국제 행사였다.

이에 앞서 9월에 열린 제7회 한국국제아트페어(9월19일~23일)에서도 이이남씨가 10점, 최재영씨가 8점의 작품을 판매하는 등 지역작가들이 인기몰이를 했다. 최재영씨는 독일, 스위스 등 3개국의 갤러리들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성과도 거뒀다.

나인갤러리 양승찬 관장은 “경기침체가 미술시장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작가들이 적극적으로 아트페어와 해외 전시를 공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광록기자 krah@kwangju.co.kr

남도 음악 명인 한일섭을 아시나요

화순 출신 아쟁 산조 명인... 국립국악원 ‘재조명’ 공연

11월 5~6일 국악원 예약당

남도 음악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화순 출신 한일섭(1929~1973·사진) 선생의 작품 세계를 조망하는 연주회가 마련된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은 오는 11월 5~6일 오후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종류, 과거를 넘어 현재를 수놓다-남도 음악의 거장 한일섭 명인을 재조명하다’를 공연한다.

매부인 성원복(성창순 명인의 부친)에게 소리를 배우기 시작하며 국악에 입문한 한씨는 이후 다양한 남도 음악을 섭렵했고 이후 여성국극단 악사장으로 활동하며 창극의 작·편곡자로 이름을 날렸다.

1962년에는 처음으로 아쟁산조라는 국악 형식을 만들어냈으며 후에는 태평소 시나위를 만들어 풍물, 무속, 불교음악에서 사용되던 태평소라는 악기를 무대에서도 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씨는 특히 서용석·박종선·김청만·이성강씨 등 현재 한국 국악계를 이끌고 있는 명인들의 스승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번 공연에서는 ‘한일섭 아쟁 산조’에 의한 산조합주와 ‘한일섭 태평소 시나위에 의한 태평소와 시나위’가 공연되며 특히 현재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악사로 활동하고 있는 아들 한세현씨가 함께 무대에 올라



의미를 더한다. 티켓 가격 1만원. 문의 02-580-33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인문학을 즐겁게”

인터파크 인문학 도서 ‘희망의 캠페인’

인문학 도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출판사와 인터넷 서점이 함께 나섰다.

인터넷서점인 인터파크INT 도서부문은 인문학 도서시장 활성화를 위한 ‘희망의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인문사회과학출판인모임과 함께 추진하는 희망의 캠페인은 출판인모임 소속의 출판 전문가 5명

이 매일 첫째 주마다 지난 3개월 동안 출간된 인문사회과학분야의 도서를 가운데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대중적인 인문학 책 12-15종을 ‘이달의 인문학 추천도서’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기에 인터파크도서는 3개월 단위로 인문/역사/인물, 사회과학/자연과학, 종교/예술과 과학/대

중문화 등 3개 분야별 독자 리뷰단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책과 도서 구입비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지원한다.

선정된 리뷰단은 이달의 인문학 추천도서 중 1권 등 매달 3권 이상의 인문학 도서를 읽고 리뷰를 작성하며 각종 인문학 캠페인 행사에 패널로 참가하게 된다.

캠페인 첫 달인 10월에는 인문 분야에서 ‘역량이 출몰하던 조선의 바다’(박헌홍 지음, 현실문화연구 펴냄), ‘하늘이 감춘 땅’(조현, 한겨레신문사), ‘야쿠자 음지의 권력자들’(미야자키 미나부, 이다미 디어)가 추천도서로 선정됐다. /연합뉴스

광주극장 ‘서부영화 컬렉션’

‘놈놈놈’ 간느영화제 버전도 상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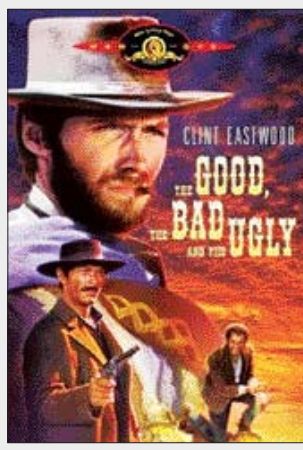
‘석양의 무법자’의 명감독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세르지오 레오네 컬렉션’과 ‘웨스턴 무비 컬렉션’이 11월 2일까지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이번에 상영되는 작품은 클린트 이스트우드, 리안 클리프가 주연을 맡은 서부영화의 고전 ‘석양의 무법자’를 비롯해 헨리폰다와 찰스 브론슨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옛날 옛적 서부에서’, 제임스 코번 주연의 ‘석양의 광들’이다. 특히 로버트 드 니로의 열연과 아름다운 음악이 인상적인 레오네의 유작 ‘윈스 어번 어 타인인 아메리카’도 상영된다.

‘웨스턴 무비 컬렉션’에서는 러셀 크로가 열연한 새로운 개념의 서부영화 ‘3 : 10 투 유마’,

1913년 혁명이 한창인 멕시코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샘 클린과 감독의 ‘와일드 번치’와 ‘대평원’ 등을 만날 수 있다.

특히 700만명이 넘는 관객들을 동원했던 김지운 감독의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의 경우 극의 마지막 결본이 다른 간느영화제 상영 버전을 만날 수 있다.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석양의 무법자’

디지털 음원 활성화 토론회

30일 김대중컨벤션센터

디지털 음원 및 음향 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의 장이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30일 오후 3시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세미나 206호에서 ‘아시아음악 콘텐츠를 활용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음악 산업의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갖는다.

이상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개최자로 문을 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만재(문화체육관광부 CT R&D 기획단장)씨가 ‘CT 분야 R&D 사례’에 대한 기조 발제한다. 이어 음악, 디지털 음원, 음악산업 활성화, 음악 페스티벌 등 4개 섹션에서 ‘아시아 디지털 음원의 산업화’(최상환 중앙대 국악과 교수),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성공 사례를 통해 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음악페스티벌의 성공전략’(계명국·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사무국장)을 주제로 토론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일곡도서관 ‘동아리 한미당 축제’

21개 동아리 참가

광주일곡도서관(관장 안미영)이 오는 31일 오후 7시30분 도서관 1층 로비에서 ‘함께해요! 제7회 동아리 한미당 축제’를 연다.

이번 축제는 일곡도서관에서 활동

중인 21개 동아리가 1년 동안 활동한 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축제에서는 시립국극단 단원으로 활동 중인 이지선씨의 관소리 공연을 시작으로 바이올린반의 ‘하이

든의 세레나데’, 클래식 기타반의 ‘비발디의 사계 중 겨울 2악장’ ‘영화 시네마 천국 러브레터’ 등의 연주가 이어진다. 또 팝송반은 아바의 히트곡인 ‘I have a dream’ ‘Dancing Queen’을 부르며 영어클럽의 연극 ‘Rainbow Fish’, 일곡시회의 사랑송 등 다양한 공연이 준비됐다. 문의 062-575-3457.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영화안내

movies 인기영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p>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p> <h3>메가박스</h3> <p>구.린원국사거리 ☎에메1544-0600</p> <p>1관 아내가 결혼했다 (18세) 최고급판 2관 미쓰홍당무(18세) 3관 바디 오브 라이즈 (15세) 4관 미스 페터그루의 어느 특별한 하루(12세) 미쓰홍당무(18세)/화피(15세) 5관 이글아이 (12세) 6관 그 남자의 책 198쪽 (12세) 7관 허우투프렌즈(15세)/데스 레이스(18세) 8관 공작부인 (15세) 9관 아내가 결혼했다 (18세)</p> <p>•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p>	<p>—은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p> <h3>엔터 시네마</h3> <p>충정로 5가 (전화예약) 228-2700</p> <p>1관 아내가 결혼했다 (18세) 2관 모던보이(12세)/맘마미아(12세) 3관 미쓰홍당무(18세) 4관 허우투프렌즈(15세)/신기전(15세) 5관 데스 레이스 (18세) 6관 내친구의 사생활(15세)/비빌론 A.D(12세) 7관 바디 오브 라이즈(15세)</p> <p>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안한 좌석의 주차장 300대 • 금.로.실.업.영</p>	<p>황포시당 영화시당 • 예매: www.joybox.com / 1588-7941</p> <h3>콜롬버스 시네마</h3> <p>상무점 (상무점영입/이마트 사이) 해남점 (무역화면판)</p> <p>1관 아내가 결혼했다 (18세) 2관 사과 (15세)/미쓰홍당무 (18세) 3관 아내가 결혼했다 (18세) 4관 아내가 결혼했다 (18세) 5관 신기전(15세)/도쿄(15세)/허우투프렌즈(15세) 6관 공작부인 (15세)/데스레이스(18세) 7관 맘마미아(12세)/이글아이(12세)/화피(15세) 8관 그 남자의 책 198쪽 (12세) 9관 바디 오브 라이즈 (15세) 10관 이글아이 (12세)</p> <p>• 호남 최대 주차장 • 매일실업 상영합니다</p> <p>1588-7941 상도영입권 받음 -1만~4만-1년</p> <p>콜롬버스 하스점 (10개관) 잡티상영중</p>	<p>새집있는 영화시당 • www.cinua.co.kr / 1544-0070</p> <h3>씨너스 전대</h3> <p>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p> <p>1관 그 남자의 책 198쪽 (12세) 2관 미쓰홍당무(18세) 3관 아내가 결혼했다 (18세) 4관 허우투프렌즈(15세)/화피(15세) 5관 공작부인 (15세)/사과 (15세) 6관 이글아이 (12세) 7관 바디 오브 라이즈 (15세)</p> <p>• 매일실업 상영합니다 •</p> <p>ARS 전화예매 1544-0070</p> <p>•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피닉스씨 사우나(오전8시~오후11시)</p>	<p>고려시당 고대점동 • www.hamcinema.co.kr / 1588-9120</p> <h3>하미 시네마</h3> <p>진달래동 하미포박스 ☎ 267-7777</p> <p>1관 그 남자의 책 198쪽 (12세) 2관 도쿄 (15세) 3관 화피(15세) 4관 허우투프렌즈(15세)/모던보이(12세) 5관 미쓰홍당무(18세)/데스레이스(18세) 6관 맘마미아 (12세) 7관 아내가 결혼했다 (18세) 8관 바디 오브 라이즈 (15세) 9관 이글아이 (12세) 10관 신기전 (15세)</p> <p>• 500여대 넓은 주차장(8시간무료) • 385 매일실업 • 이동통신사 & OK 캐쉬백 카드 할인 혜택</p> <p>• 하미 수영장 288-5757 • 하미 북점점 282-0825 • 하미 골프장 251-5060 • 하미 당구장</p>	<p>새마을기점 • www.primacinema.com / www.je1cinema.co.kr</p> <h3>제일 시네마</h3> <p>충정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800</p> <p>1관 아내가 결혼했다 (18세) 2관 아내가 결혼했다(18세)/허우투프렌즈(15세) 3관 이글아이 (12세) 4관 바디 오브 라이즈 (15세) 5관 그 남자의 책 198쪽 (12세) 6관 미쓰홍당무(18세)</p> <p>• 무료주차 3시간 (광주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p> <p>ARS 전화예매 227-1960</p>
---	--	--	---	---	---